

군산시에 복지 해결사들이 뜬다

군산·엔타이, 협력 발판 마련

자매도시 결연 30주년 기념행사 · 미디어연합 교류센터 현판식

복지 기동대 · 우리동네 흥반장 구성 완료... 독거 어르신 · 저소득 세대 등 불편 해소 지원

방의 전등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움을 겪는 독거 어르신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방법을 몰라 소외된 저소득 세대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군산시에 복지 해결사들이 뜬다. 바로 '군산시 복지기동대'와 '우리동네 흥반장'이 그 주인공이다.



군산시는 먼저 27개 읍면동 '군산시 복지기동대' 구성을 완료, 본격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및 생활 안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기동대'는 관내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이·통장,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기존 읍면동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민관협력의 재능 기부 조직이다. 마을마다 5명 내지 2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총 276명이 활동하게 된다.

'복지기동대'의 지원활동은 다양하다.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돕는 한편

반장'이 그 바톤을 이어받는다. 찾아가는 생활 돌봄 복지서비스의 하나인 '우리동네 흥반장'은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마을의 손재주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 서비스다.

2023년 5월 나운 · 3동에서 시범 시행했던 '우리동네 흥반장'은 홀몸 노인 등 110세대에게 형광등 교체, 출입문 현관문 건전지 교체 등 일상 속의 불편함을 해결하여 주었으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되어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이웃 간의 상호 돌봄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우리동네 흥반장'은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교체, 못 박기 등 간단한 수리부터 집 옮기기, 커튼 달기, 빨래 건조대 출고 등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연계해 진행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난 15일 군산시와 엔타이시 자매도시 결연 30주년 기념행사가 지스코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은 두 도시의 언론인들이 함께 한 미디어연합 교류센터 현판식까지 함께 열려 군산과 엔타이가 향후 광범위한 협력을 하게 될 발판이 마련됐다.



이날 군산 새만금 지스코에서 군산과 엔타이 언론인들은 앞으로 있을 두 도시의 경제협력과 문화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엔타이시 관련 책임자들, 군산시 시청 관계자와 이번 행사를 주도한 중국산동방 관련 책임자, 언론인 20여명 등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해 성황을 이뤘다. 또한 군산시 기업 대표와 관광사 대표도 참석, 두 도시 간의 관광과 경제협력을 가시화하기 위한 제안들이 나오기도 했다. 행사 다음날인 16일에는 '중화문화

의 코너·니산서옥 현판식이 열렸다. 군산시청 1층 민원실 내부에 자리한 니산서옥은 엔타이시의 전통 문화 및 관광 정보를 소개하는 곳이다. 현관식에서는 군산시 대표로 안창호 군산시청 자치행정국장이 엔타이시 대표로 류보 엔타이시 상위, 선전부 부장이 함께 현판식 제막을 진행했다.

제막 후 엔타이 측에서는 중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서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군산과 엔타이는 니산서옥에서 문화와 마음을 나누고 공감대를 모아갈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민원 제도 정비 윈스톱 민원 행정 구현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시민들이 필요한 민원 사항을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 제도 정비와 윈스톱 민원 행정 구현에 나섰다.

이번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윈스톱 민원서비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 약식으로 먼저 심사를 청구하는 사전심사 청구제, △경합이 많은 직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처리를 돕는 민원후견인제, △복합민원 처리 방문 전 담당자와 상담 예약을 하는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등이 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25종의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을 현행 38명에서 33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민원 신청 시 편의 제공을 위해 법령상, 조직개편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민원 편람을 정비하였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 공모 선정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공모에 16팀이 신청했다.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은 농촌관광 운영 주체가 여행사와 협업해 농촌에 특화된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농촌문화 체험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참여, 배움, 재미, 휴식, 힐링 등을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익산시는 국비 1억 2500만 원을 포함해 총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 변화로 단체 관광에서 가족 관광, 나 홀로 관광 등 소규모 형태의 관광 추세를 반영해 운영한다. 또한 건강·힐링을 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상품 기획 운영으로 '다이어리용 시골여행'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관광객 유치에 주력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베트남 계절근로자 입국... 농촌 인력부족 해결

익산시, 계절근로자 102명 입국 완료... 지정 농가 17개소에 배치 90일간 근로 예정

익산시가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투입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나섰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2일과 16일 2회에 걸쳐 베트남 에이수현의 계절근로자 102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17명의 지정 농가에 배치돼 앞으로 90일간 근로하게 된다.

익산시는 베트남 다락성 에이수현과 직접 접촉해 지난해 2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지난해부터 상

반기 9농가에 39명, 하반기 14농가에 72명을 배치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성실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 지난 2월 진행된 베트남 대면 면접에 참여, 102명을 최종 선발했다.

또한 고용농가와 근로자 간 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에이수현에서 입국 전 한국어 교육과 무단이탈 방지 교육 등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으로 농촌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에이수현 업무협약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 2가지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두 가지 방식을 해소하기 위해 에이수현에서 총 284명으로 선발된 계절근로자는 총 284명으로 법무부에서 배정받았으며,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계절근로자도 순차적으로 입국해 지정농가에서 근로하게 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밤 푸드존 운영계획 재수립해야"

한경봉 군산시의원, 5분발언서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6일 제2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어찌다 이런 일이 13. 수상한 푸드 트레일러의 화려한 외출'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내에는 2018년에 문을 연 '군산밤 푸드존'에 푸드 트레일러 6대가 있다며 내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가 '군산밤 푸드존'에 6년간 투입한 예산은 총 4억 3,700만원으로 2018년 최초의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이 사업의 취지는 청년 실업 해소 및 시간여행마을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어 6년이 지난 지금 군산밤 푸드존은 어떤 모습일까요 3월 31일 일요일 오후에 내항에 있어야 할 푸드 트레일러가 사라졌는데 작년 이어 2년째, 유레카협동조합 주관으로 '군산밤 푸드존' 행사 중이었다며 군산시의 답변은 2022년 3월, 입찰 공고에 응

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협동조합과 2년 계약을 체결했고 2024년 이 용량은 1대당 월 4만 6,728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봉 의원은 이 답변에 △음철자가 한 명도 없었던 2022년 3월에서 6월까지 3차례 입찰공고내용과 수의계약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 △유레카는 수의계약 당시 해당 법인의 사업종목이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으로 음식 관련 면허 또는 식품조리, 음식 관련 업에 종사한 실적도 없는 등 자격이 없었다는 것, △내항 야간 관광활성화와 시간여행마을 방문객 먹거리 증대라는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게 4월 14일 일요일 오후에 내항 군산밤 푸드존에 푸드트레일러는 있지만 문이 굳게 닫혀있는 것 △빛꽃야시장, 수제맥주축제, 시간여행축제 등 군산시 주요행사나 축제에서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고 얻은 매출액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등 수익금 처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행히 4개월 후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군산시는 먼저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새로운 운영 단체를 선정하는 무방한 입찰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공보육 기반 인프라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익산시는 공보육 인프라 구축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한다. 시는 힐스테이트익산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익산 힐스테이트 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열린 개원식에는 힐스테이트익산 위탁사 관계자, 학부모, 보육관계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상 1층, 면적 230㎡ 규모로 보육실 4개, 유희실 1개, 외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갖췄고 정원 45명으로 운영된다.

익산시는 지난해 11월 위탁사 신한자산(주) 및 (유)트리플선과 향후 20년간 어린이집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시설 리모델링과 교재교구비 등으로 사업비 1억8000만 원을 투입해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입주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공립 설치 협약 시 정원의 70% 이상을 아파트 입주주민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취약보육 강화를 위한 영아반 시간연장반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전문성을 더욱 강

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원으로 익산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19개소로 늘어났으며, 2028년까지 총 9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해 폭넓은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육훈을 주는 곳이다.